



# 꽃물은 왜 자꾸 흐르는 거야?



꽃물은 왜 자꾸 흐르는 거야? ①





이해 버드가 알려줄게!



콧물은 감기 바이러스를  
무찌르기 위해서 나오는 거야!

코를 통해 들어오는 먼지와 세균을 막기 위해서 우리  
코 속에서는 콧물이라고 부르는 끈적한 점액\*을 만들  
어요. 이 점액은 먼지와 세균이 코털에 달라붙게 하는  
역할을 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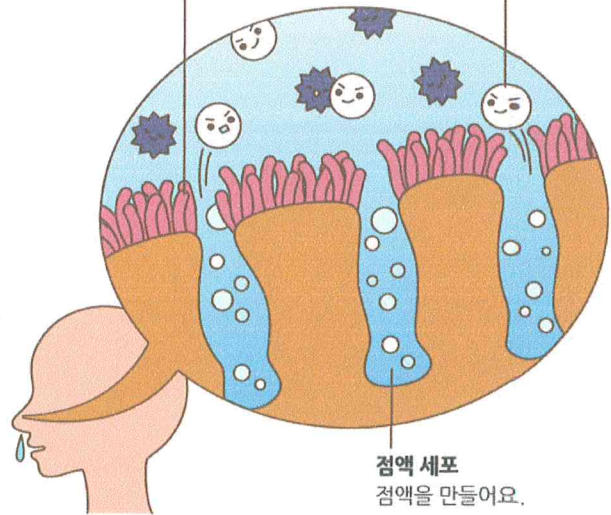
그래서 감기에 걸리면 코 속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를  
무찌르기 위해서 더 많은 양의 점액을 내보내게 되고  
콧물이 흐르게 되는 거예요.

섬모

작은 실처럼 생긴 돌기인데,  
움직이면서 더러운 것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켜요.

점액

오염된 물질이나  
병균을 잡기 위해  
점액 세포에서 나와요.



점액 세포  
점액을 만들어요.

#### 용어 정리

- \* 점액 : 끈적끈적한 액체
- \* 바이러스 : 스스로 살지 못하며, 동물·식물과 같이 살아 있는 세포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생물



한걸음 더 더 알아볼까요?

#### 코딱지도 콧물과 같을까?

코 속의 끈적한 점액과 밖에서 들어온 먼지가 섞여 굳어진 것을 코딱지라고 해요.  
콧물과 코딱지는 액체와 고체의 차이점만 있을 뿐 실제로는 같다고 볼 수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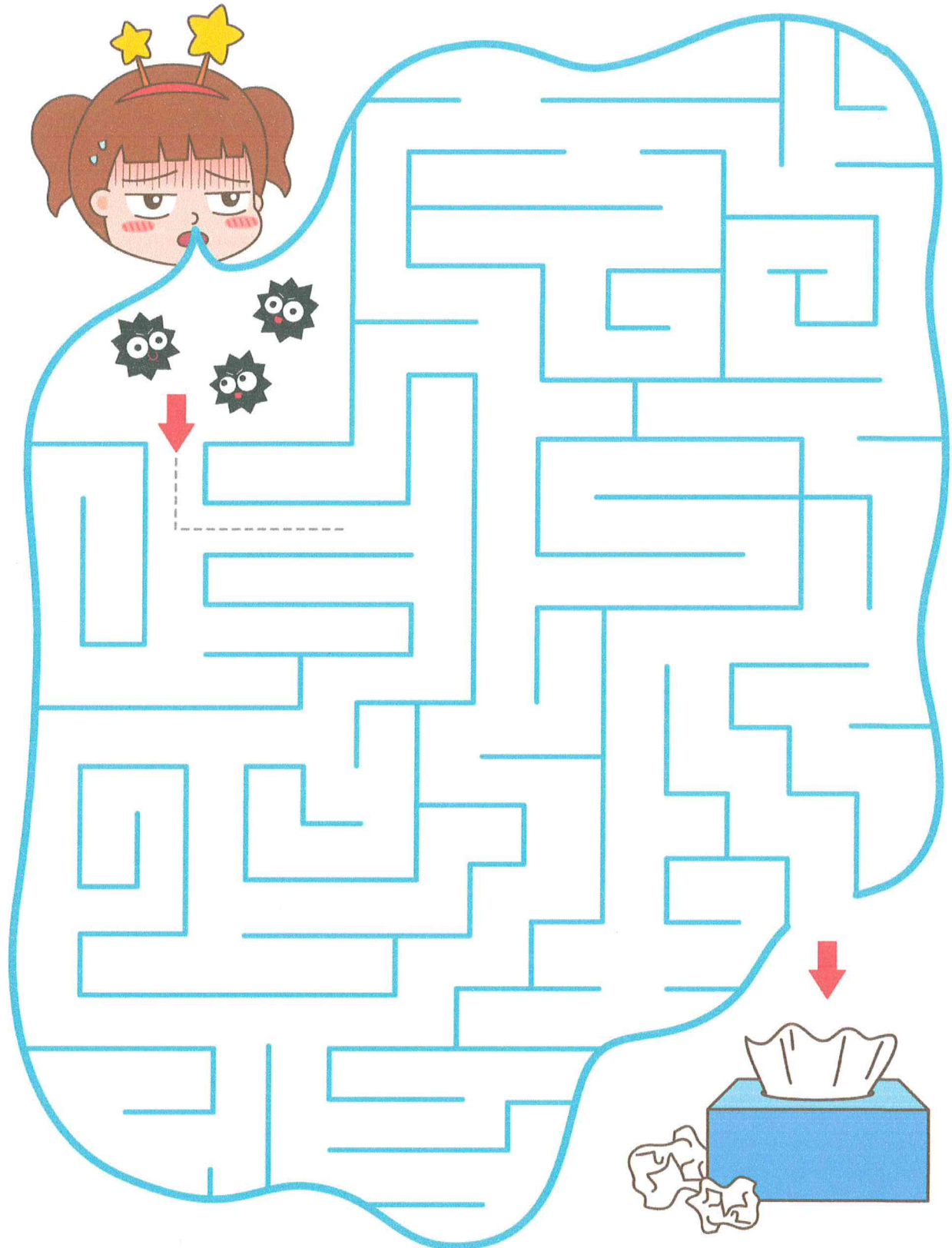


콧물은 왜 자꾸 흐르는 거야? ②



활동 1

감기 바이러스를 내보내서 별이가 얼른 나올 수 있게 도와 주세요.



콧물은 왜 자꾸 흐르는 거야? ③





활동 2

위의 그림을 보고 아래 그림에서 틀린 곳 5개를 찾아서 O 하세요.



(일일일)를10 '년' (일일일)을10 '년' '일' '일' : 일

\* 본 콘텐츠의 모든 저작권은 니즈폼 버드맘에 있으며,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금합니다.

꽃물은 왜 자주 흐르는 거야? ④